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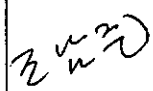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결 재	서 무	간 사	의 장
			

제6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 시	2016. 04. 19(화) 12: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인원	부의장 안승권, 문창로, 김인걸, 변추석, 허영화, 윤정국, 김춘형, 이태준, 이성훈		
업무지원	전략기획팀 이행호, 서무 이해경		
불참의원	조남준, 김상섭		
발표자	총무처장 이호선, 재무팀 실장 신승철, 예산조정팀 부장 임양재, 재무팀 배수현		
안 건	1. 2015학년도 결산(안) 자문 2. 기타 토의 사항		

◎ 회의내용

- 이행호 : 재적의원 11명 중 조남준 의장, 김상섭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오늘 회의 안건은 2015학년도 결산(안) 자문임을 설명함.
- 안승권 부의장 : 개회를 선언함
- 이태준 의원 : 평의원회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19일 회의와 관련한 회의 자료를 18일에 전달받아서 제6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위한 자료 검토 및 자문 내용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말하고 2천억 원이 넘는 결산 자료

[안건 1. 2015학년도 결산(안) 자문]

- 이호선 총무처장 : 2015학년도 결산(안) 자료를 설명함(붙임자료 참조)
- 안승권 부의장 : 결산 자료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계정의 어느 단계까지 작성된 것인지 질문함
- 신승철 실장 : 계정과목의 목 항목까지 자료에 표시하였다고 말하고 학교 회계는 그렇게 기재하고 있다고 답변함
- 윤정국 의원 : 결산 자료를 보니 작년 자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안승권 부의장 : 예전부터 그래왔다고 그대로 하기 보다는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이전의 패턴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함
- 김춘형 의원 : 학교회계의 항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산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이는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며 항목별로 맞춰져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이 돈이 잘 쓰였는지 판단할 근거도 없고 그 판단조차도 전문지식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함.
- 윤정국 의원 : 이번 결산 자문 회의에는 예산조정팀장님이 배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함. K-pop과정의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실제 달성액은 7천만 원인지 묻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임양재 부장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예측치를 잡아 조정을 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는데 실제 실행단계에서 예상한 만큼의 수입을 거두지 못했으며 여름방학에 맞추어 진행하려던 것들이 메르스의 여파로 차질을 빚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하지만 평생교육원의 다른 사업들이 두 배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무조건 해당 부서의 한 개 과정 운영 수입만을 탓할 수 없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법정부담전입금의 사용처를 보니 사학연금부담금으로만 사용이 되었는데 학교의 다른 행정에는 쓰이는 곳이 없는지 질문하고 기타기금적립금은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기타기금인출액 58억의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는지 질문함
- 신승철 실장 : 재단의 전입금은 전액 사학연금부담금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기금에는 특수대학원의 자체 발전기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항목의 제한은 특별히 없다고 말하고 58억에 대한 세부 내역은 3페이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기숙사 사용 토지매입, 임차보증금, 특성화 사업지원 및 대학 및 대학원의 기자재, 장학금, 학생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의 집행율을 보면 90%, 88.6% 등 예산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고 이는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 질문함
- 배수현 : 학교는 일반 회사 조직과는 달리 조직이 세분화 되어 있어 본예산 편성 후 추경 예산 때 조정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하지 못한 경비 등이 비록 부서별로는 적더라도 모아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함
- 임양재 부장 :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는 입찰로 계약된 단가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정이 되어 집행액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이 집행될 때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긴축 재정을 위해 더 절약이 된 것들이 많다고 말하고 일례로 전국 규모의 대학협의체 행사가 작년 여름 메르스로 인하여 취소되어 여비나 교통비 등이 예년에 비해 집행이 줄어 생겨난 결과라고 답변함
- 김춘형 의원 : 예산을 감축하고 절약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한다고 발언함
- 김인걸 의원 : 전년 대비 등록금수입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학생으로 인한 증가인지 질문하고 추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함

- 신승철 실장 : 외국인학생의 등록금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맞다고 말하고 현재 조금씩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이호선 총무처장 :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2016학년도 예산 중 단기수강료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질문함
- 임양재 부장 : 약 156억 원 가량이라고 답변함
- 안승권 부의장 : 외국인학생의 대부분이 중국 학생인지 묻고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질문함.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의 나라에 방문해 보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으므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발언함
- 임양재 부장 : 중국 학생의 비율은 약 80% 정도 되며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등의 외국인학생 유치에 애쓰고 있지만 중동권 외국인학생의 입학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담당부서인 국제교류팀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국의 대학이 모두 외국인학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학생 유치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설명함.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년도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함
- 문창로 의원 : 외국인학생의 입학이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학생의 관리나 수업의 질 면에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발언함
- 이성훈 의원 : 자료에 표시된 단기수강료란 외국인학생의 등록금인지를 질문함
- 임양재 부장 : 학위과정의 수입은 등록금수입으로 잡히고 단기수강료란 평생교육원, 한국어학당, 제로원 디자인센터 등 비 학위과정생의 수강료라고 답변함
- 이성훈 의원 : 비학위과정의 한계가 있을 텐데 단기수강료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다고 말하고 외국인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해보면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학생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함

▪ 임양재 부장 :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학생 관리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된 학생회에서 외국인학생과 국내 재학생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함

▪ 이성훈 의원 : 예산의 지원 내용이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열람실 등 공간 배치 등이 외국인학생과 국내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성과 위주의 지급, 외국과의 교류 부분에만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함

▪ 안승권 부의장 : 제출된 감사의견서를 보면 2015년도에는 외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는 어떠한지 묻고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질문함

▪ 신승철 실장 : 외부 감사는 매 회계연도에 받는 것이고 올해 회계 법인이 바뀌어 올해도 외부 감사를 받았으며 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위해서 일단 의견서만 먼저 보내왔다고 답변함

▪ 배수현 : 전체 감사보고서는 24일쯤 나올 것 같다고 답변함

▪ 김춘형 의원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이원화 되어 있는지 묻고 법인회계의 비용이 학교회계에서 지출 될 수도 있는지 질문함

▪ 신승철 실장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분리되어 있고 학교회계의 수입금은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하며 법인은 따로 수익사업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답변함

▪ 윤정국 의원 : 보수 항목이 예산 대비 12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교직원 총원이 되지 않아 생긴 차액인지 질문함

▪ 신승철 실장 : 기타 교원의 모집이 줄었고 LINC사업단의 보수가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강사료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답변함

▪ 윤정국 의원 : 보수 항목 차액에 관한 자세한 내역을 추후 답변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함. 순 적립액이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복리후생비나 시설물관리비 등에서 절약이 되어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하고 구성원의 회의비, 출장비의 감액이라든가 학생 행사 축소 등의 지출을 줄이면서 지출되어야 할 곳에 지출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직 2016년도 인건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의 고통 분담이라는 측면도 이제는 배려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닌지, 대학 운영에 있어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면 한다고 발언함. 순 적립액 30억 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함

▪ 임양재 부장 :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남았다기보다는 학교 전체의 수입 대비 지출을 사용하고 남은 비용이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말하고 건물감가상각비 71억 원을 적립했어야 하나 적립금 30억을 제외한 41억 만금을 적립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실제 이월액은 62억이 아닌 약 21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함. 명시 이월금이 24억이므로 실재는 약 3억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수지차액이 염려할 만큼 크지 않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함

▪ 신승철 실장 : 산학협력단전입금이 전년도의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나 예산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성훈 의원 : 전체 예산 대비 총결산액이 73억 정도 덜 지출된 것과 장학금이 예산 대비 약 50억 원 정도가 덜 지출된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배수현 : 73억은 예·결산 차액이고,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은 차기이월자금 62억 원이며 학생경비 예·결산 차액 54억 중 교외장학금 예·결산 차액이 36억인데 이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결정 및 집행이 대학의 추경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예산을 여유 있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차액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기와 비교해 보면 장학금 지출은 증가했다고 설명함

▪ 임양재 부장 :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도 이러한 제도가 계속되리라 예측되어 예산을 상향 책정하였는데 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실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었을 때 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 이성훈 의원 : 교내장학금과 실험 실습비, 학생지원비는 왜 줄어들었는지 질문함

▪ 이호선 총무처장 :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줄어든 예산은 실험실습비만 줄어들었다고 답변함

▪ 임양재 부장 :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장학금은 컴퓨터학부가 지원받은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지원 장학금 5억을 2015학년도에 지출하지 않고 이월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월된 금액으로서 실제 줄어든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함

▪ 김인걸 의원 : 시설관리비의 집행율은 약 100%에 달하는데 이는 수의계약에 따른 지출을 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입찰계약의 방식을 사용하면 집행율이 100%에 가깝게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발언함

▪ 신승철 실장 : 계획을 세워 본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추경 편성 전까지 미 집행된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예산대비 100%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함

▪ 김인걸 의원 : 공개입찰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임양재 부장 : 공사입찰은 2억1원 이상, 그 외에는 5천만1원 이상이라고 설명함

▪ 김인걸 의원 : 공개입찰 조건을 변경하여 더 낮은 금액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기계기구매입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지정한 업체에 구매요구를 하면 개별적으로 조사한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의 차이가 있어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발언함

▪ 변추석 의원 : 앞서 말씀드린 발언은, 결산(안) 자문 회의가 평의원회에서 꼭 해야 하는 회의이므로 원칙에 따라 잘 진행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평의원들은 예·결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준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비교를 할 만한 타 대학의 자료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제 가능한 비용 측면의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등록금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예산을 집행할 때 정당하게 중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숫자 확인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처음이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미래지향적, 발전적 관점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기를 요구함

▪ 안승권 부의장 : 제출된 자료는 공사로 치자면 조감도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자료로는 자문이 힘들며 대학평의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상황에 회의가 전년보다 발전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함. 다음번 예산이나 결산 관련 회의 자료는 신규 사업이나 공사, 투자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하여 제출해주기를 바라며 보고서가 두꺼워질수록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함

▪ 이성훈 의원 : 대학평의원회가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회의에서 나온 언급들이 다음 해에 평의원이 바뀌어도 이행되는지 질문함

▪ 안승권 부의장 : 시스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이 오는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2015년도 결산(안)에 관해 평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문함

첫째, 예산을 감축하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문함

둘째, 외국인학생의 입학이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학생의 관리나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외국인학생의 관리 및 국내 학생과의 형평성 부분에 관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함

셋째, 공개입찰 조건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계기 구매입시에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함

넷째, 미래지향적, 발전적 관점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대차대조방식의 자료가 아닌 집행 내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이면서도 효용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기를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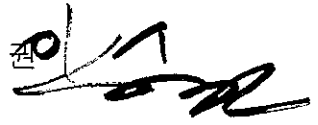
2016. 4. 19

대학평의원회

의 장 조 남 준

부의장

안 승 권



의 원 문 창 로

의 원

김 인 걸



의 원 변 추 석

의 원

허 영 화



의 원 윤 정 국

의 원

김 춘 롱



의 원 이 성 훈

의 원

이 태 준



의 원 김 상 섭